§§

해외정보

o 대만의 TFC, 중국 내 복합비료 플랜트 설립 승인

TFC(Taiwan Fertilizer Co)는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얻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중국 본토에 일련의 복합비료 플랜트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제안서에 착수할 예정이다.

TFC는 이 최초의 복합비료 플랜트를 장쑤성 지방의 양저우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 플랜트의 예상 복합비료 설계용량은 연간 15만톤이며, 천 5백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양저우는 국내 주요 판매시장으로의 운송이 편리한 지리적인 이점을 고려해 선택되었다.

TFC는 아직 예정된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할지 중국 내 다른 업체와 합작투자 형식으로 진행 할 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TFC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합작투자를 하더라도 경영권은 회사측이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를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 회사는 대만에 5개의 비료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복합비료와 황산암모늄 그리고 과석을 비롯해 비료의 총 설계 용량이 연간 백만 톤에 이른다.

이 플랜트들은 각각 기룽(Keelung), 신주(Hsinchu), 묘율(Miaoli), 카오슝(Kaohsiung) 및 후아리엔(Hualien)에 위치하고 있다.

TFC의 최대주주는 대만 경제부로서 회사 지분의 44%를 보유하고 있다.

< Fertilizer Week, 2003년 7월 4일 >

o 모로코의 OCP, DAP 입자 제조설비 설립 예정

OCP는 모로코의 Jorf Lasfar 부지에 일일 생산용량 120톤 규모의 새로운 DAP 입자 제조설비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 설비는 2005년 8월에 가동을 개시할 계획이다.

§§

신규 설비의 기본 엔지니어링, 세부 설계 및 시공 지원 서비스 계약은 미국의 Jacobs Engineering과 체결했으며, 계약가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Jacobs는 이와 별개로 동일한 부지에 위치한 기존 생산라인의 개조 공사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CP는 Jorf Lasfar에 4개의 입자 제조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모로코에 위치한 두 DAP 생산라인의 일일 총 통합 생산용량은 천 4백톤에 이르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다.

Jorf Lasfar에 있는 다른 두 입자 제조설비의 일일 통합 생산용량은 중과석으로 측정시 천 백톤에 달하지만, 실제 생산라인에서는 DAP와 MAP를 생산 중이다.

OCP는 Safi에서도 MAP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설비에서는 DAP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생산설비들의 하류부문 인산비료 생산용량은 연간 총 200~220만 톤에 이르며, 이는 제품 배합에 따라 다르다.

이 생산설비의 연간 DAP 수출량은120~130만톤에 이른다.

< Fertilizer Week, 2003년 6월 27일 >

o Azeri의 비료 사용률 증대 위한 IFDC의 계획

Azeri 수입단체들은 IFDC가 추진하는 3개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주 FSU 비료 생산단체 및 국제 무역단체들과 회동을 가졌는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향후 수년 간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의 비료 사용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 국제 개발처(US AID)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아제르바이잔의 수입업체에서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농업과 비료에 관한 정보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라고 IFDC의 사업개발 및 교육 전문가인 Anar Khalilov씨는 설명했다.

수입업체들에게는 무역 연락처 설치를 통해 국제 비료 시장에 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며, 농부들에게는 농업 관련 정보원들을 통해 농작물과 씨 그리고 비료의 사용 방법, 시기 및 종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Khalilov씨는 " 농업 관련 정보원들은 IFDC에서 변화 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 및 교육을 받는 도매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고 말했다.

§§§

농업 관련 정보원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부분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사업개발과 신용 및 대부지원 등도 포함된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이 사회 및 정치적 구조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가구 1 헥타르의 토지를 할당하여 1997년 이후 농업 종사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에 따라 농부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Khalilov씨는 "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농가구 수는 약 80만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는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고 말하며 " 그 결과 아제르바이잔의 연간 비료 소비량은 5만톤 정도에 불과하며, 이 중 90%는 암모니아성 질소 형태의 질산비료가 차지한다 " 고 덧붙였다.

현재 약 10개 업체가 아제르바이잔의 전체 비료 요구량을 수입하고 있다. IFDC는 인접국가들에 대한 수입업체의 무역 임무을 전파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일례로 RustaviAzot가 아제르바이잔에 연간 2만톤의 비료를 공급하기로 한 거래를 체결한 그루지아(Georgia)에 대한 무역 임무을 들 수 있다 "고 Khalilov씨는 설명했다.

Khalilvo씨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비료 공급량의 대부분은 수입이 차지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아제르바이잔에 비료설비가 신규로 들어서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과석을 생산하던 숨가이트(Sumgait)는 10년 전 생산을 중단했으며, 지금까지 설비를 재구축하기 위한 해외투자가 유치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농부들은 간자(Ganja)의 Aluminum LLC에서 생산되는 가리에 부과되는 톤 당 300달러의 지불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당장은 5년 전 가리 생산을 중단한 플랜트의 지난 재고분을 판매하고 있지만, 현재 재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Khalilov씨는 설명했다.

< Fertilizer Week, 2003년 7월 27일 >

o 인도, 질산암모늄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 상무부는 러시아와 이란에서 들여오는 질산 암모늄(AN)에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

이러한 조치는 Deepak Fertilizers and Chemicals, Gujarat Narmada Valley Fertilizers 및 National Fertilizer 같은 인도의 생산업체들이 러시아와 이란의 폭발물 등급 AN(EGAN) 생산업체들에 대처하기 위해 취해졌지만, 유일한 이란 업체인 Petrochemical Commercial은 이러한 청원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질산암모늄 생산업체들도 인도 반덤핑 이사회가 지난 1월 마련한 자리에서 인도 업체들과 가격 책정 부문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폭발물 등급은 183.08 달러로 책정됨에 따라 이 양륙지 가격과 이보다 낮은 가격 간이 차액이 관세로 부과되었다.

인도는 2002년 18만 7천 톤의 EGAN을 생산하였으며, 이 가운데 국내 수요는 약 60%를 차지한다.

이란은 만 2천톤을, 러시아는 이보다 많은 6만톤을 각각 수출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유로캠(Eurochem)에서 수입했다.

질산암모늄의 비료 소모량은 CAN의 6만톤에 불과한 매우 적은 수준이다.

< Nitrogen & Methanol No 263, May-June 2003 >

o 중국, 질산암모늄 사용량 감소

중국 정부는 질산 암모늄(AN)을 비군사용 폭발물로 재분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비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훨씬 엄격한 안전 관리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 2002년 약 3백만톤의 질산암모늄을 생산했으며, 생산업체 수도 54개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NPK 및 다른 복합비료 제조업체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정부에 총 1억 3천만달러의 자금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비료업체들이 요소 및 DAP와 동일한 쿼터 체계를 따르지 않는 관계로 2002년 11월 한달 간의 수입물량이 8만 9천톤에 이르는 대규모 질산암모늄 수입국가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서방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질산암모늄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63, May-June 2003 >

§§

o 사우디, Uhde에 Safco 암모니아 플랜트 매각

Sabic 관계단체인 Safco(Saudi Arabian Fertilizer Company)는 Uhde에 Safco 암모니아 요소 제조설비 4호기를 5억 2천만달러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Uhde에 두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되는데, 하나는 회사 최초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이며 두 번째는 새로운 대규모 이중압력 암모니아 기술을 최초로 판매한 것이다.

Uhde는 이미 메탄올 및 LPG 업계에서 사용 중인 프로세스 장비를 기반으로 한 두 단계 프로세스로 일일 4천톤의 플랜트 생산용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세계적인 플랜트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완전히 이러한 규모가 되지는 않더라도 Safco의 암모니아 플랜트 4호기는 일일 3천 3백톤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공된 플랜트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이다.

Uhde는 또한 일일 3천 250톤 규모의 요소 제조설비에 기존의 기술을 제공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하이드로(Hydro) 입자제조기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그에 따른 암모니아 잉여분 45만 t/a는 수출용으로 돌릴 예정이다.

시공은 올해 말 개시하며 완공은 2005년 말로 예정되어 있다.

< Nitrogen & Methanol No 263, May-June 2003 >

o 말레이시아, 제조설비 개조 고려하는 Bintulu

전하는 바에 따르면, 비료업체인 ASEAN Bintulu는 보르네오섬 Sarawak의 Bintulu에 위치한 이 회사의 60만 t/a급 암모니아 요소 제조설비의 개조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한다.

이 플랜트는 불과 18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요소와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소량의 암모니아 잉여분을 생산한다. 개조 및 병목현상 해소 작업은 2004년 말 예정된 소요시간 동안 실행할 계획이며, 플랜트의 암모니아 잉여분(현재 14만 5천 t/a)을 요소 생산량으로 되돌림으로써 암모니아의 생산용량을 44만 5천톤으로, 요소는 74만톤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ASEAN Bintulu는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의 합작투자사이며, 말레이지아의 Petronas가 전체 지분의 64%를 소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각 13%씩 보유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9% 그리고 싱가포르는 1%를 보유하고 있다. 업체측에 따르면, 개조 작업은 Petronas에서 전담할 계획이라고 한다.

< Nitrogen & Methanol No 263, May-June 2003 >

♣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여 사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강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A. 지드의 지상의 양식중에서 >